

2014-2024

세월호 그 후 10년

잊지 않겠습니다

김정용 사진전

세월호 참사 10년의 기록



김정용은 지하철 노동자이자 사진가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서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2015년부터 동거차도를 15회 정도 방문하면서 유족과 함께 진실이 인양되기를 기원하며 사진기록작업을 했다.

세월호 그 후 10년, 잊지 않겠습니다 사진전은 작가가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10년 간 지켜온 증거이다.

이 사진을 보는 우리 역시 그 약속을 잊지 않았음을 기억한다. 바라봄, 지켜봄, 함께 봄. 봄은 기억이다. 기억은 힘이 세다.



세월호 참사 10년의 기록

- 01 침몰하는 세월호
- 02 팽목항에서
- 03 동거차도에서
- 04 잊지 않겠습니다
- 05 세월호 인양
- 06 작가의 말

세월호 참사 10년의 기록





동거차도 2017. 1. 1.

1. 침몰하는 세월호

2014년 4월 15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가 4월 16일 전남 인근에서 침몰하여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탑승하였으며, 단원고 학생 325명 중 250명, 교사 11명이 사망하였다. 일반인 사망자는 4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총 사망자는 304명이다.

- 2014. 4. 16. 동거차도 사고 해역
침몰하는 세월호
동거차도 어민 제공 사진



팽목항 2014. 2016.
2015. 2018.
2022. 2023.

2. 팽목항에서

팽목항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팽목리에 있는 항구이다.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팽목항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이후 이름을 진도항으로 바꿨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팽목항으로 부른다.

- 2014. 10. 3. 기다림의 팽목항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염원을 모아
간절한 마음을 바다로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외



동거차도 2022. 5. 31.

3. 동거차도에서

동거차도의 주소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이며, 동경 125°54' , 북위 34°13'에 위치한다. 진도에서 남서쪽으로 14.5킬로미터 떨어진 섬으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다. 사고 당일 구조 및 세월호 가족들이 인양 기간 내내 동거차도에 거주하는 동안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한 섬이다.

- 2014. 10. 3. 기다림의 팽목항
- 2015. 10. 9. 인양 감시 움막 외
- 2016. 4. 14. 인양 해역을 바라보는 가족들 외
- 2017. 1. 1. 사고 해역 외
- 2018. 4. 15.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 외
- 2019. 8. 4. 사고 해역 참배 외 2020. 2021. 2022. 2023.



광화문광장 2014. 8. 16.

4.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지독한 슬픔과 아픔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온갖 멸시와 조롱을 견디어 온 유가족들과 생존자들, 그리고 수습에 나섰던 이들과 함께였던 지난 4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거짓과 폭력, 불의의 세력들과 치열한 싸움의 시간을 우리는 함께 견디어 왔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켰고, 실천 해왔습니다. 그 실천의 과정에서 촛불 시민혁명을 촉발시켰으며, 마침내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어내며 민주주의를 되살려냈습니다. (4.16재단 창립선언문 중에서, 2018)

- 2014. 5. 17. 영혼을 위로하며 외
- 2015. 5. 1.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바라며 외
- 2016. 12. 24. 이제는 밝혀라 외
- 2017. 1. 7. 유가족의 눈물 외
- 2023. 3. 25. 함께 걷는 길



목포신항 2019. 1. 1.

5. 세월호 인양

2017년 3월 22일, 세월호가 미수습자 9명과 함께 차디찬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지 2년 11개월 만에 본격 인양작업이 진행되었다. 세월호는 23일 오전 3시 45분 경, 우현 스태빌라이저가 모습을 드러내며 약 2년 11개월 만인 1071일 만에 처음으로 해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목포 신항으로 옮겨져 있는 세월호는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 갯벌에 국립세월호생명기념관을 건립해 영구 보존할 계획이다.

- 2018. 5. 12. 통한의 세월호 외 (가족협의회 제공)
- 2019. 1. 1. 통한의 세월호 외
- 2020. 4. 16. 백동 무궁화동산 세월호 기억의 숲 추모비



목포신항 2019. 1. 1.

6. 작가 김정용의 말

저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으로 지하철 전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입니다. 선박이나 전동차는 대형 대중운송수단이므로 사고 시 인명 피해가 큼니다. 세월호는 내구연한이 지난 선박이었습니다. 예고되었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과 처음 만난 2014년 7월부터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사진 기록을 했습니다. 유가족이 2015년 9월 1일 세월호 침몰 해역이 보이는 동거차도에 감시천막을 세우자, 10월 9일부터 15회 정도 동거차도의 세월호가족 협의회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맞이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안전한 세상을 위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며 별이 된 아이들을 '잊지 않습니다.'

1964년 생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노동자

- 2024 세월호 참사 10년 '잊지 않습니다'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瀛) 경인미술관 제3관
- 2019 세월호 참사 5년 '잊지 않습니다' 갤러리 경북공역 미술1관
- 2014 '개망초의 꿈' 갤러리 류가헌

2014-2024

세월호 그 후 10년

잊지 않겠다는, 같은 마음이 있는
갤러리를 찾습니다.
대관만 해주시면 '잊지 않겠습니다'
사진전을 개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hotographer 김정용

Contact photogom@daum.net
 +82 10 8932 5579

함께 기억하시겠습니까?

